# となるないと記





#### 방선문

출입가능지점

#### 3코스

#### 물독개 ~ 방선문

약 1.7km / 도보 35분 소요

제주국제공항 - 방선문 자동차 약 20분

#### 한북교

출입가능지점

#### 2코스

#### 한라도서관 ~ 거북바위

약 1.3km / 도보 25분 소요

제주국제공항 - 한라도서관 자동차 약 15분 / 버스 약 25분 [95번] 제주국제공항 → [5번] 시외버스 터미널 (환승) → 한라도서관 하차

#### 한라도서관

출입가능지점

#### 1코스

#### 고지래또 ~ 깅이소

약 1.7km / 도보 35분 소요

제주국제공항 - 고지교 자동차 약 10분 / 버스 약 20분 [95번] 제주국제공항 → [5번] 시외버스 터미널 (환승) → 제주보건소 하차

#### 고지교

출입가능자점

#### I 태풍 및 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트래킹 금지)

l 문의전화

오라동주민센터 : 064)728-1541 관광안내 : 국번없이 1330

## となかけるとないた会と

이제야 나서는가! 방선문 가는 숲길과 한천 계곡 이야기

#### 차례 Contents

- 이야기가 샘솟는 숲속의 길 : 굽이굽이 사연따라 걸어가는 길
- **1 고지래또 \_12** 방선문 가는 숲길, 첫 발디딤 옛 고을
- ② 설문대할망 족도리바위 (족감석) \_14 비나이다 비나이다 설문대 할망
- **3 항소 \_18** 올곧은 마음 항아리에 가득 담아
- ◆ 창꼼소 \_22○ 이리로 볼까 저리로 볼까 숲길 사이 한천 하늘
- (5) 다람쥐궤 \_26 아가야 다람쥐야 혼디 놀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 6 판관소 \_30 어진 목사의 덕행에 감복한 신령님의 선물, 마르지 않는 큰 내
- ▼ 애기소 \_34

  붉고 슬픈 사랑의 참꽃 애랑과 배비장의 못다한 사랑
- 3 강이소 \_38 부름들린 놈덜아 강이 곁에 오지 마라

#### 차례 Contents

- Ⅱ 사색과 명상의 길: 예술의 향기가 감도는 진밭
- 오라동의 귤림서원 한라도서관 \_44숲속길 거닐다 잠시 멈추어 문예향(文藝香)에 빠지다
- ① 숲속의 공연장 제주아트센터 \_48 바람타고 스며든 요정의 메아리 나를 살짝 끌어당기다
- ① 오라동 감귤낭 \_52 소리없이 피어난 하얀 귤꽃 두린 애기 역게 하다
- ② 호거(虎踞)바위 \_56 금수의 계를 어겼어도 바위로 남아 인간 세상을 지켜 보리니
- (3 거북바위 \_58 왈랑왈랑 내가 터지면 마실 나서는 바다의 영물

#### Ⅲ 풍류와 치유의 길: 걷다보면 내가 신선이고 숲일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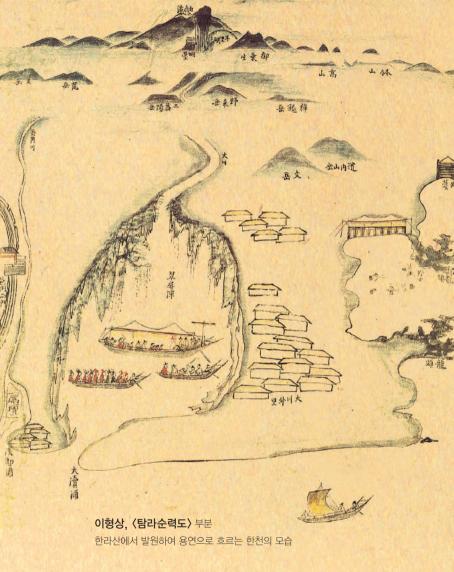
- ❷ 물독개 \_64 어려려∼ 말테우리 소리 솔짝이 들려왐저
- (5) 가카원이 / 영천(靈泉) \_68 못 가 본 저 곳이 하영 알고정호다
- 6 걸락쿰 폭포 \_70 신선이 감춰놓은 한 폭의 병풍, 와랑과랑 비 와사 온차 내보이네
- ☞ 좀팍물 \_74어여오시게 이제 곧 들렁귀에 도달하리라
- (3) 방선문(訪仙門)과 마애명(磨崖銘) \_76 선계 탐한 선비 흰 사슴 되어 돌문 지키다 방선(訪仙), 신선을 찾아가다 / 신선이시여, 내 사연 훈번 들어봅써 환선(喚仙), 신선을 부르다 / 살포시 퍼진 구름 사이로 드러날까 우선(遇仙), 신선을 만나다 / 비우고 비우니 세상이 아름답도다 유선(游仙), 신선과 노닐다 / 그대와 훗날을 기약하노라
- 영구춘화(靈丘春花)와 방선문축제 \_90 느영나영 춫던 그곳 신선의 엉덕에 가심을 맡기다

### 이제야 나서는가! 방선문가는 숲길과 한천 계곡 이야기

방선문 가는 숲길을 휘감고 도는 한천(漢川)은 백록담 북벽 아래 용진각(해발 1,520m)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이곳에는 옛날 옛적 바닷가 용연에서 백록담까지 닿을 정도로 커다란 용이 한내창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전설 속의 용은 백록담 바로 밑 용진굴에 들어앉아 용틀임할 때마다 맑고 차가운 물을 토해내었다. 이렇게 쏟아진 물은 탐라계곡을 거침없이 파헤치며 한천 끝자 락에 있는 남해바다로 호호탕탕 흘러 들었고 한냇가 오라리 마을마다 솟아오르는 용천수를 만들어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로 오를 기회를 도모하던 용은 끝내 제 힘에 부쳐 탐라계곡 너머 깊은 땅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승천을 이루지 못한 비원(悲願)서린 용의 뜨거운 눈물이 한천 곳곳에 뿌려져 여러 소(沼)를 만들었고, 용의 고뇌가 기암괴석으로 솟아올라 바위로 굳어졌다고 한다.



오늘도 방선문가는 숲길 한천에 비가 내릴 때면 사라진용의 포효를 방불케 하는 물살이 수많은 바위와 소(沼)를 삼키며 거침없이 흐르는 보기 드문 장관을 보여준다.

100 人人工。从 钱 编心 动分息 太去海 当就 梁港沟 名。旗左對 



I

### 이야기가 생솟는 숲속의 길

굽이굽이 사연따라 걸어가는 길

#### 1 고지래또

# 对学的 如是

드높고도 아름다운 기운이 서린 동네라는 의미의 고지래(高旨來) 마을은 60여 년 전 비극적인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동네의 옛터인 고지래또는 지금도 옛 자리에 오롯이 남아있다.

방선문 가는 숲길의 출발점인 고지래또는 흔히 '곶올레'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한라산 숲으로 들어가는 곶의 길목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고지교(高旨橋) 옆에 검은 옥색의 표석만 덩그러니 남아 기억의 편린으로 사라진 고지래 마을의 흔적을 알려주고 있다.

고지래 마을은 제주성 안팍 사람들이 한라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자리잡았던 작고 아담한 동네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제주의 불행한 역사인 4·3사건 당시 마을 소개령으로 불태워져 사라지면서 발길이 끊겼고 오늘날 도시화가 진전되며 세워진 고지교 다리공사로 고지래 마을의 용천수 터였던 소로기샘과 소로기바위가 부서지고 흩어져 그나마 마을의 존재를 알려주던 자취마저 알 길 없는 뼈아픈 사연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오라리 어른들의 수구초심(首丘初心)이 모여서 마을의 지명과 유래를 입으로 눈으로 전해 오다가 이제 작은 비석에 정성으로 새겨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지금도 가끔 고지교 하늘 위로 소로기들이 날아드는 것을 보면 미물도 어미로부터 옛 시절을 전해 들은 양 그리워하는 것 같지 않은가!

#### 제주문화 길잡이

**곶**: 숲 또: 道, 입구, 끝 소로기: 솔개

#### 2 설문대할망 족도리바위 (족감석)

HILLOIEL WILLOIEL



설문대할망의 족도리가 큰바위로 변해서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오다가 정해년(2007년) 제주를 들썩였던 대풍(나리태풍) 때 닥친 엄청난 물살에 아래쪽으로 떠내려 갔었다.



오라동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상징석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중 기축년(2009년)에 온 마을의 힘을 합쳐 원래의 제자리로 바위가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곳이다. 족도리바위에는 탐라를 창조한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깃들어 있어 마을에서 극진으로 보살피는 바위이기도 하다.

옛날에 오라리 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이 입을 소중의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고 설문대 할망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뭍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설문대 할망은 소중의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보고싶어 한천을 따라 내려오던 중 더운 날에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해 한천 옆에 앉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소중의를 보고는 안스러운 마음에 족도리를 벗어 바위에



올려놓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족도리 밑에 드리운 그늘이 너무도 넓어 오라동 마을 사람들이 한여름 더위를 식혔다고 한다.

그 후 할망이 쓰던 커다란 족도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바위로 변했다. 마을사람들은 한천에서 멱을 감다가 물에 빠져 넋이 나간 아이를 족도리바위에 데리고 가서 설문대 할망께 치성을 드리면 아팠던 아이도 바로 뛰어놀 정도로 나았다고 하며, 아들을 점지해 주는 신통력이 있다는 전설도 전해오고 있어 설문대할망 족도리석이라 불려온다.



#### 제주문화 길잡이

**설문대할망**: 제주의 창조여신 **대풍**: 태풍 **소중의**: 속옷 창품소 4 항소 3 독가석 <sup>2</sup> 고지대표 조 교지대표

③ 항소

## きそらいき でからとの)トラだのト

항소는 예로부터 오라리 마을사람들이 마소들을 곳(숲)으로 데려가 오르내리며 물마시고 쉬던 사람들이 항상 붐비던 곳이었다.

그 동네에는 쇠들을 거래하며 잇속만 챙기는 욕심많은 흥정바치가 있었는데, 어느 때던가 예쁜 각시와 항소에 놀러 와서 각시는 서답하고 흥정바치는 곁을 지키던 중 지나던 쇠에 홀려서 지켜보다가 흥정이문에 눈이 팔려 한라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답 마께 제주대학교박물관



그때 항소에서 서답하던 각시가 마께를 놓쳐 건지려다 깊은 물에 빠져서 서방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그후 사람들은 이를 교훈삼아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달밝은 밤이면 흥정바치 각시가 서답하러 항소에 나타난다 하여 늦은 시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 허벅 항아리 옹기

또한 항소는 모습이 커다란 항아리 속 모양과 똑같이 생겨 그 바닥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오라리 마을 아이들이 서로의 담력을 뽐내려고 맨 아래 바닥의 돌을 주워 올리는 물질을 하던 추억어린 곳이기도 하다.

#### 제주문화 길잡이

항소: 항아리처럼 생겼다하여 불리는 물의 이름 서답: 빨래 흥정바치: 거간꾼 마께: 빨래방망이

#### 4 창꼼소

## の12日参加 対2日参加

이 소(沼)는 숲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제모습을 드러 내는데, 두 개의 소가 붙어있어 마치 어두운 방에서 바람벽에 빛을 들이려 창(窓)을 뚫어 놓은 고망인 것 같다하여 창꼼소라 일컬어진다.

오라리 사람들에게는 어린시절 물 아래 바위구멍을 드나 들며 놀이하던 장소였다고 한다.

창꼼소는 어둡디 어두운 방안을 훤히 비추는 창꼼처럼 한창 우거진 방선문 가는 숲길을 거니는 모든 이에게 한줄기 빛을 내보이듯 좋은 마음새를 지니라는 뜻을 풍기는 것 같기도 하다.





창꼼소에는 항소의 슬픈 설화속에서 전해오는 교훈이 담겨 있는 듯하다. 흥정바치의 탐욕을 경계하고 서답하던 아낙네를 불쌍히 여긴 방선문 신선들이 그녀를 천상으로 이끌어가는 등불같다 하여 바라볼 때마다 애잔한 마음이 든다.



지금도 숲길을 걸으며 창꼼소 주변을 훑어보면 부드러우면서도 꼿꼿한 회색빛 바위와 기기묘묘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형상들을 보게 되는데 육지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석군(石群)들에 우리 모두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문화 길잡이 고망** : 구멍 **창꼼** : 창구멍

#### **6** 다람쥐궤

### かから これ部のできる きか 学 合いは P12171号 となるい



궤는 흔히 깎아지른 절벽과 바위가 뒤엉켜 동굴처럼 형성된 곳을 일컫는데, 이곳이 마침 박쥐의 서식지이기도 하여 다람쥐궤라 불린다. 다람쥐궤에는 바깥보다 더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데 겨울에는 얼음이 얼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다람쥐궤를 마주 보고 펼쳐진 소낭받은 일제 치하에서 관청에 빼앗겨 관전(官田)으로 불리다가 이후 마을 명의로 이전된 곳이지만 이 밭은 빈곤하던 옛 시절 영양부족과 질병으로 안타깝게 죽은 아기들의 무덤을 마련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 남아있는 관전의 모습

아이를 먼저보낸 부모들의 한과 슬픔이 애달프게 배어 있는 곳이라 어느 무덤이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표석조차 세우지 않았다는데, 누구의 자식이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서로를 치유하던 마을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있어 오늘날 이 길을 걷는 도시인들에게 애작한 마음을 전해주는 듯하다.

다람쥐궤와 몰래쓴 아이들의 묘가 있는 소낭밭 길목에서 박쥐들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고 날아오를 때면 아이들의 혼령과 놀이를 하는 듯 이따금씩 바람이 이는데, 주변보다 낮은 온도차로 인한 음산한 느낌에 문득 다른 세상인 양 지나치는 이들의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찌보면 항소에서 들려오는 서답소리와 창꼼소에 비친 밝은 달에 놀란 아이들의 수선스러운 소스라침이 아닐까.

#### 6 판관소

### 이건 목사의 덕성에 감성한 시스템성의 선물, 모나는지 않는 큰 내

판관소는 한천을 대표하는 크고 넓은 소이다. 이곳의 물은 예로부터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여간해서는 마르지 않아 한천에서 멀리 떨어진 연미마을 사람들도 먼 길을 마다않고 허벅을 지고 와서 물을 길어 나르던 베품이 많은 소이기도 하다.

특히 이 소(沼)의 물이 마를 즈음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곤해서 동네 사람들이 한해 농사일을 가늠하던 신령스러운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옛날 한천 숲길을 따라 방선문으로 향하던 판관 일행이 가마나 말을 타고 오르다가 이곳 물로 목을 축이면서 가마꾼과 말몰이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되새기면서 말에서 내려 목민관의 자세를 가다듬었다고 하여 판관소라 불리게 된 연유를 가진다.



한편에서는 판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 목사의 훌륭한 선정을 칭송하던 마을 사람들이 판관소에서 목사의 어짐이 자자손손 계속되기를 바라는 서원(誓願)을 한라산 신령에게 빌고 빌어 마르지 않는 소가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옛이야기의 교훈을 받들어 제주에 부임한 판관들은 판관소의 물로 갈증을 덜어내고 소(沼) 옆에 병풍처럼 드리워진 바위 아래 앉아 시 한 수를 읊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백성에 대한 도리를 다짐했다하여 그 바위를 판관바위라 불렀으며 지금도 오라올레길에 온전히 남아 있다.



판관바위



제주 목사 이익태(1633-1704) 국립제주박물관 재임기간(1694-1696) 동안 관덕정 등 제주목관이를 재정비하고 〈지영록〉을 편찬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 7 애기소

## 第四分是人的海省第一份人的

옛날 제주목에 애개라는 기생과 신관 목사가 봄날 방선문에 피어나는 참꽃처럼 붉디 붉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조정의 부름을 받은 목사는 조만간 애개를 곁에 부르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조하고 서울로 떠났으나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하니 먹돌같이 단단했던 사내의 약속도 부평초처럼 흩어지고 결국 변심한 목사는 애개를 까맣게 잊고, 제주에 홀로 남은 그녀는 기약없는 기다림과 그리움에 지쳐 그만 둘만의 추억이 서린 이곳에 몸을 던졌다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본래에는 애개소라 불리다가 오늘날은 애기소로 불리고 있다.

#### 제주문화 길잔이

**애개** : 사랑스러운 기생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제주말로 '아기'라는 뜻을 가진다. 지금은 애개가 애기로 변하여 불려지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애개의 사연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판소리 열 두 마당의 하나인 배비장전으로 만들었고 배비장을 웃음거리로 만든 얘기는 육지사람들에 대한 애개의 작은 복수가 아닐까?

애기소 내창 가운데를 걸어 남쪽으로 한바탕 걸어 오르면 목사와 애개가 올라앉아 사랑과 풍류를 즐겼다는 숨은 기암들의 절경이 나타나는데 이곳을 '곱은내'라고 한다.



곱은내 전경



#### 제주문화 길잡이

**참꽃** : 제주 고유의 철쭉

**곱은내**: 숨겨진 내 (내가 말라 있을 때 걸어가기 쉬운 곳이다.)



#### 3 강이소

### 부음 불신 남일이 길에 얻게 마과 마라



이 소는 예전에 오라리 마을 아이들이 강이잡기 하던 곳으로 강이, 즉 참게가 특히 소 근처 바위틈에 많이 서식하여 강이소라 불린다.



얼마전까지도 이따금 깅이가 보였으나 잦은 폭우와 한천의 환경 변화로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백록담에 큰 비가 내릴 때 용진각에 살다가 사라진 용의 비늘이 물살에 실려 떠내려오는 것을 방선문 신선들이 거두어서 깅이소 근처에 흩뿌렸다고 하는데, 아마 방선문 신선들이 비늘을 깅이로 변신케 하여 선계(仙界)를 지켜내는 수호물로 삼은 모양이다.

신령스러운 용비늘처럼 단단한 껍질에 쌓인 게가 깅이소 바위굴 아래 숨어있다가 속세의 바람들린 이들이 달뜬 마음으로 방선문에 오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드러내는 인기척 이라도 보이면 속솜하라는 듯, 부치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듯 풀숲을 들썩이고 집게발을 들고 눈을 치떠올리며 경계하곤 하였던 것이 아닐까.

#### 제주문화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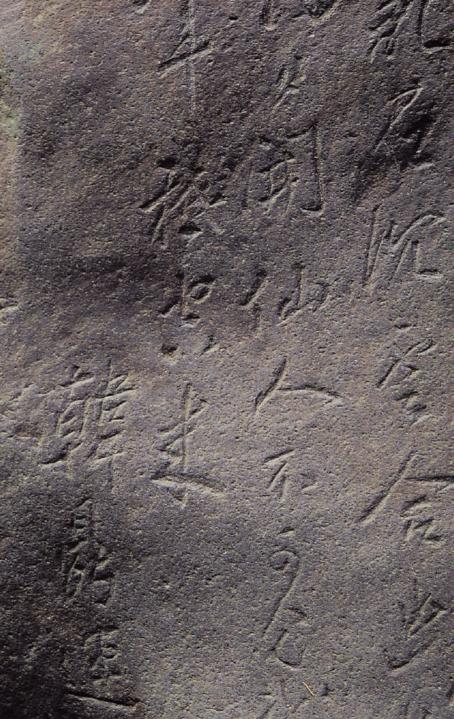
**부름들린 놈덜아** : 바람난 사람들아

**강이** : 게, 참게 **속솜** : 조용

**부치러운**: 부끄러운



**최수길, 길상도6곡병(吉祥圖六曲屏)** 부분 19세기 말 ~ 20세기 초, 제주대학교 박물관







### 사색과 명상의 길

예술의 향기가 감도는 진밭



### ② 오라동의 귤립서워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은 방선문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그 옛날 풍류를 누리며 책을 읽었다는 선비들의 터이다.

방선문 가는 숲길을 걷다 보면 숲터널 한켠으로부터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이끌리어 어느덧 독서 마당 앞에 발길을 멈추게 된다.



한라도서관은 제주 시내에 있는 탐라와 우당도서관 중간 지점으로 한라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라동에 2006년 문을 열었다. 다양한 서적과 각종 영상 미디어 자료들이 오가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 한다. 자연 채광을 한껏 살린 산뜻한 실내 독서 공간과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넉넉한 앞뜰에는 미술 전시회, 동화여행, 영화읽기 등 문화 프로그램이 철마다 열린다. 한라도서관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도 일품이지만, 감귤나무 군락지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감귤과 함께 해 온 제주 역사의 한 자락을 증명하듯 자리를 지키고 서있는 감귤나무들의 성성한 모습에 오늘날 도서관의 책 읽는 소리가 겹치면서 귤림 서원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 쏙쏙 들어 온다 펼쳐진 마유의 글들을

소나무가 울창한 숲속의 독서 마당 한라도서관은 옛 선비들이 굳은 맹세의 상징 푸른 솔을 벗삼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 들었 듯이 가던 발길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양식을 쌓기에 제격이다.





개미짓도 전경

한편 한라도서관 근처 한천 냇가를 걷다보면 오라동과 이웃 동네인 오등동을 이어주던 왕래길 개미짓도를 만나게 된다. 작은 풀숲을 헤치고 내를 건너 이웃 동네 마실 가던 길 위에는 우리들 삶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을지언정 살뜰한 옛 정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 ① 숲속의 공연장 제주아트센터

# 나를 살아가 길어당기다

방선문 가는 숲길은 작은 공연 전시장과 제주아트센터를 이어주고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지역문화를 물씬 느끼게 하는 숲 속 향연의 공간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 숲속의 작은 공연 전시장

숲속을 걷노라면 방선문의 사계절을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작은 공연 전시장이 우리를 반겨준다. 제주의 상징인 참꽃에서부터 영주십경 중에 으뜸가는 영구춘화의 아름다운 한 폭,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주변경관, 신선한 공기를 가르고 열리는 축제 한마당, 골짜기마다 굳게 새겨진 마애명의 자료사진과 함께 자연속 아늑함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오라리 사람들의 남다른 애정으로 꾸며져 숲속 사색의 향기를 더해주고 있다.





### 숲속은 항상 아름다운 향연

빼어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제주의 대표적인 공연시설로 자리잡은 제주아트센터는 2010년에 설립되었다. 선비들이 마음을 살찌우는 풍류를 통해 교양과 품위를 지켜왔듯이 자연과 더불어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술의 향연장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무대시설과 만남의 장소, 잔디 마당 나무 그늘 아래에 솔바람 향기와 함께 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사랑받는 야외 쉼터와 작품을 상시 전시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갤러리, 전망대에서 보이는 작은 오름들과 늘 변하지 않은 초록의 삼나무가 빼곡한 이곳에서 신선한 호흡으로 머물게 하는 작은 오솔길 사이의 숲속 쉼터가 이어진다.



### 1 오라동 감귤낭

## 个21억的 可以任 古下企 建 导到 6H71 图以新山

방선문 숲길을 가다보면 줄줄이 늘어선 감귤나무들이 보는이의 눈과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따스한 봄날에는 하얗고 앙증맞은 자태에서 터져 나오는 귤꽃 향기, 선선한 가을 황금빛물결로 출렁거리는 아름다운 경치는 가히 제주를 대표하는 귤림추색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오라동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 과원들이 많다.

고려 문종 6년(1052년)에 "탐라국에서 고려 조정에 해마다바치는 귤을 100포자(包子)로 고쳐서 항구한 기록을 삼았다."라는 구절은 귤의 진상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귤의 진상을 위하여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 매년 심은 나무의 수량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과원들을 계속 설치하여 나무의 수를 불려나갔다. 하얀 귤꽃은역사 속에서 자아내는 고난과 절규의 향기를 뿌려주는 듯하다.

재배하여 진상하는 귤에도 품위가 있다. 귤 중에 제일 빨리 익는 금귤, 유자, 동정굴이 진상의 으뜸이며, 다음은 청귤, 감자, 그보다 조금 못한 유자와 산귤이 있고, 그 밑에 당유자와 왜귤이 있다.

#### 제주문화 길잡이

제주의 감귤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세도가나 맛볼 수 있는 금빛 열매로 주요 공물로 조정에 진상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관영과원을 설치하여 나무당 감귤의 개수까지 관리하게 하였고, 부족한 감귤 수량을 충당하기 위해 집집마다 태풍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수량까지책임을 물었으니, 백성들은 더 이상 귤나무를 심으려 하지않았다. 한때는 감귤나무를 아예 없애 버리려는 고민 끝에 도끼로 찍어 말려 죽이거나 구멍을 내고 후추가루를 넣어 죽게만드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나무'라 불리웠다. 이처럼 모질고 험난한 진상제도는 고종 31년(1893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감귤의 재배는 195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산이 수입금지 되었던 시절에는 감귤나무 몇 그루만으로도 넉넉한 살림살이와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해서 '대학 나무'로 불리기도 했다. 한때 원한으로 가득했던 전통 감귤은 오늘날에는 누구도 쉽게 맛볼 수 있는 사랑받는 국민 과일로 자리잡았다. 가을이면 방선문 가는 숲길 옆에는 언제나 주렁주렁 감귤이 매달린 풍성한 감귤낭을 볼 수 있다. 이 감귤이 지금도 오라동 사람들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



춘원(春園), 〈영주십경도10곡병(瀛洲十景圖十曲屏)〉 중 귤림추색(橘林秋色) 20세기 초, 제주대학교 박물관



### ② 호거(虎踞)바위

# 子門門 田原田 出場出出

탐라계곡 속으로 용이 사라진 후 한라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땔나무와 먹을거리를 찾아 짙은 숲과 깊은 계곡에 널려있던 한라산 속으로 들어오고 호랑이는 사람을 경계하여 피했다고 한다. 한라산 산신령이 사람과 금수에게 서로를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호랑이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굶주린 호랑이 한마리가 계율을 어기고 사람을 잡아먹으려 한천 숲을 따라 한밤중 조심조심 숨어 내려왔다. 그러나 방선문 너머 오라리 인근 계곡에서 산신령에게 발각되고 말았으니! 경계를 어긴 호랑이는 하늘을 찌르는 신령의 노여움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오라리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볼 수 없었고 한라산 깊은 계곡으로 남겨졌던 호랑이도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제 한라산에 남은 유일한 한 마리가 바로 이 호거(虎踞) 바위인셈이다. 지금도 한천 계곡 숲길을 걷다보면 마치 노려보다가숨을 고르고 금방 달려들 듯 웅크린 호랑이 한 마리를 볼 수있다.

### ③ 거북바위

# 多さられる しょうきかならの

방선문 가는 숲길의 중간 즈음에 오면, 길은 어느새 두 갈래로 나뉘어 한천 냇가를 통과하는 하천 코스로 접어든다. 크고 작은 소는 물론 기기묘묘한 모습의 바위들을 넘나드는 이 길은 여기가 시내 한복판인가 싶을 정도로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그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바위가 있다. 넙데데하면서도 굴곡이 뚜렷한 모습이 거북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자연스레 거북바위라 불리는데, 여기에 한 편의 옛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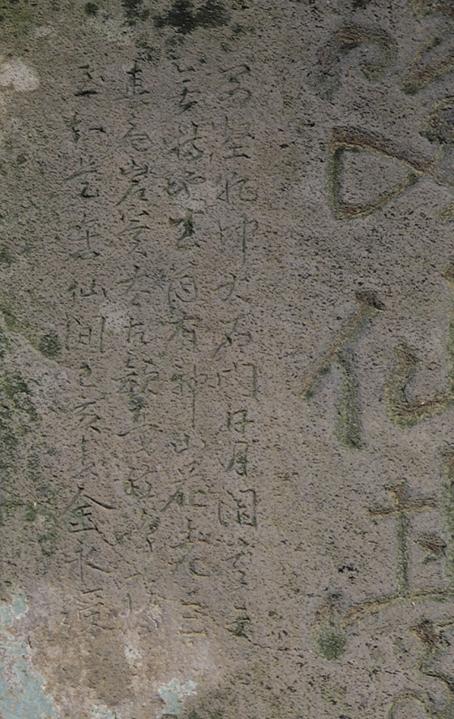
옛날 제주 깊은 바다에 용왕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금지 옥엽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인간세상을 동경해 오다가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깊은 바다를 박차고 나와 용연을 거쳐 인간 세상을 둘러보곤 했다. 거북이의 모습을 한 용왕 아들은 물이 넘쳐흐를 때 그 물길을 따라 인간 세상을 구경하고 물길이 끊기기 전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인간 세상을 구경하다 용왕 아들은 방선문에 다다르게 되었다. 방선문의 아름다운 절경에 취한 그는 물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경치 구경에만 열중했다. 날이 캄캄해져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벌써 방선문 물길이 끊긴 뒤였다.

결국 바다로 다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돌이 되었다는 거북이 굳게 다문 입과 지그시 감은 눈을 보면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나 억울한 사연을 풀어놓을 것 같다.

지금도 비가 많이 와 방선문의 물이 콸콸 넘칠 때면 혹시 거북 바위가 바다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는 건 아닐까?









### 풍류와 치유의 길

걷다보면 내가 신선이고 숲일지어다

### 4 물독개

# 6-12121-2E1921 121

오라올레길을 따라 걷다보면 한라산을 병풍삼아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말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제주의 대표적인 물독개 지경으로 금승쇠, 다간쇠, 이수매, 삼수매를 키워내어 진상하던 유서 깊은 방목지이며, 이 곳 마방목지의 조랑말은 유서 깊은 역사의 후예이다.





옛부터 말이 많았던 이곳 물독개 지경에 물테우리의 조랑말을 모는 말몰이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제주마 방목지로 변한 이곳에 금승마, 이수매만이 남아 옛 모습을 회상케 한다.

#### 제주문화 길잡이

**물독개**: 마방목지의 옛 지명이며 독개는 말이 끄는 가마의 옛말이다.

어려려~: 물테우리가 말을 모는 소리

물테우리: 말을 모는 사람

솔짝이 들려왐저: 저 멀리서 아련히 들려온다

금승쇠: 한 살짜리 소

**다간쇠**: 두 살짜리 소

이수매: 두 살짜리 말

산장구마: 목장에서 말의 수를 세기위해 몰이하는 것

숲길이 끝나는 길목에 푸른 초지와 말들이 노니는 모습은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山場駒馬) 그림인가!

옛부터 말이 많았던 이곳에 물테우리는 사라지고 오라동 제주마 방목지에 말들만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제주마는 한때 2만여 마리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1000여 마리로 감소하여 1986년 2월부터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해 천연 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 ⑤ 가카원이 / 영천(靈泉)

## なかを対えのからのをひろさい

이제 신선들이 노니는 방선문가는 숲길 지경에 차가운 물이 담긴 소가 하나 있어 사람들은 이를 '가카원이'라 부른다.

신선들의 세상인 방선문에 다가오니 삿된 마음은 놓아두고 정갈한 심성을 찾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보라는 한라산 신령이 만들어 놓은 소가 아닐까.

한자로는 각하천(覺夏泉)이라 하는데, 이를 풀어보면 "더위에 지친 몸을 차가운 샘에 담그니 문득 깨달음이 있구나!"라 하여 방선문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듯하다.





또한 추사 김정희가 당시 도읍 수령과 함께 영구춘화를 즐기러 방선문으로 가다가 이곳 가카원이를 보고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샘이라하여 영천(靈泉)이라는 일필휘지의 명필을 남겨 어느바위엔가 새겼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그 석문(石文)은 세월의 더께와 바람의 다듬이로 깍이고 깍여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글자 그대로 신령스러움을 남긴채 바위속으로 숨어들듯 사라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 **6** 걸락쿰 폭포

## 处的对称是一种的一个



비가 내리는 날 길섶을 따라가면 수석을 닮은 기암괴석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한층 시원하게 들린다. 푸른 물줄기와 숲의 정기가 속(俗)을 벗어난 골짜기에서 신선을 만나러 가는 이를 먼저 마중 하는 듯하다.

한라산 북벽에서 발원한 탐라계곡 물길이 긴 세월 흐르는 동안 움푹 바윗골을 새겼다. 보통 때는 말라 있지만 폭우가 치면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메운다.



걸락쿰폭포는 비가 와야 비로소 제 몸을 드러낸다는 폭포로 오라동 마을사람들만 간직했던 한천의 비경이다.

서귀포엔 엉또폭포가 있지만 여기는 신선 혼자만이 보겠다고 숨겨놓은 그림처럼 감상하기가 그리 쉽지않은 폭포다.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의 풍치가 걸락쿰 주변을 독특한 아름 다움으로 채워놓고, 기암괴석은 범접하기 힘든 기운을 뿜어 내며 물살을 기다리고 있다.

신선들이 들렁귀계곡에서 비를 쏟아내고 주변 바위들이 울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걸락쿰폭포가 드리워진 산수화 한 점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비가 와야만 감상할 수 있는 걸락쿰폭포를 보기 힘들고 다가가기 어려워 방선문 신선같은 마음을 지녀야만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이라 부르며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 제주문화 길잔이



내 터진 걸락쿰

### ☞ 좀팍물

## 종파물 17 결락쿰폭포 16 가가원이 15

## 6-1619시기기!

여러 종류의 낭이 어우러진 숲길을 빠져나오면 다시 바위골짜기를 만나게 되는데 옛 사람들은 이곳을 좀팍물이라 불렀다. 영주산(한라산)에서 바라봤을 때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받친 것이 좀팍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영험스런 산은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신선을 만나러 걸음을 재촉하는 이를 지켜보았으리라. 그리고 좀팍 위에 서 있는 자의 됨됨이를 보고 들렁귀(방선문) 입장을 허락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겼으리라.

바람이 잘 통하는 올레 바닥에 멍석을 깔고 곡식을 불리는 소리처럼 물이 흐르는 날에는 계곡 건너기를 조심해야 한다. 냇물이 계곡을 휩쓰는 걸 제주 사람들은 '내 친다'고 표현한다.

#### 제주문화 길잡이

**낭**: 나무

**좀팩(솔박)**: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 / 채로다 걸러내지 못한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 등을 불릴 때(검불릴 때) 주로 사용

비가 쏟아져 냇물이 차오를 우려가 있을 땐 길이 아닌 곳은 피해야 하며, 출입이 허락된 곳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탐방해서도 안된다.

이제 들렁귀가 멀지 않았다.



제주 전통 좀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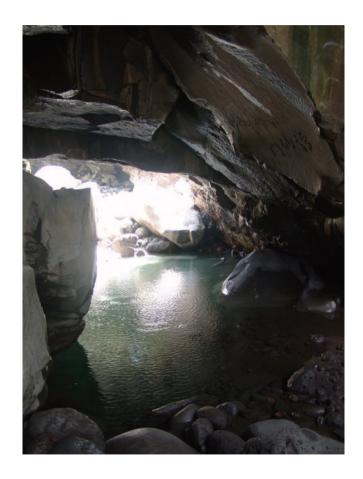


### 🔞 방선문(訪仙門)과 마애명(磨崖銘)

### **松川智並松川** 当外会至の是別山



중복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 선선한 바람을 따라 선비들이 계곡을 찾았다. 바둑판이 그려진 널따란 바위 위에 바둑돌 하나 둘 채워지는 중복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이곳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스며든다.



바람이 전해준 이야기에 궁금하던 차 어느 선비가 계곡을 찾았다. 얼마나 흘렀을까. 주위가 어두워지고 하얀 빛이 계곡물 위를 내리쬐니 하늘에서 선녀들이 살포시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한참을 바라보던 선비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선녀들에게 다가서려 발걸음을 옮기다 그만 기척을 내고 말았다. 놀란 선녀들이 허겁지겁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늘로 올라갔다.



옥황상제에게 이날의 일을 아뢰니, 천지가 요동칠 만큼 진노한 옥황상제는 선비를 찾아오라 이르고 이내 선비는 옥황상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선비를 가엾이 여긴 옥황상제는 선비에게 신선이 살고 있는 물가의 산을 돌보는 영물로 살아가라 이르고, 선계와 속계를 넘나드는 경계에 돌문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선비는 백록이 되어 선계와 속계를 오가며 신선들을 보필하게 되었고, 그 돌문은 '신선이 방문하는 문'을 의미하는 '방선문'이라 불려왔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영주 12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로 유명한 방선문! 여기에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음미하던 시인묵객이나 목사들이 유람의 흔적으로 바위나 절벽에 새긴 50여 개의 마애명이 곳곳에 숨어 있다.

## 日かれ、人はを大きりとと

조선 중기 당파의 실정을 비판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한 어느 선비가 있었다. 바람 많고 돌 많은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일 뿐 뭍에서 보는 제주도는 냉혹하기만 했다. 이 거친 제주에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시로 읊으며 술로 시간을 달래는 일이었다.

어느 날 선비를 혹하는 풍문이 들려왔다. "신선을 찾아가는 문. 저기 한라산과 맞닿은 영험한 곳으로 들어가면 신선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있다네."

선비는 곡주 한 병을 쥐어들고 방선문을 찾아 나섰다. 신선을 만나서 이 낯설고 거친 유배의 땅까지 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수작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곳에 가면 신선을 만난다 하여 단단히 작정하고 선계를 찾아 볼 참이었다.

기암절벽에는 진달래꽃이 곱게 수를 놓고 있었다. 꽃길을 따르니 신선을 만나는 하늘 길로 선비를 이끌기라도 하듯 신비한 광경이 이어지고 있었다. 구름에 잠긴 늙은 소나무, 어디선가 아스라한 학의 울음소리가 선비에게 들려온다. 入洞山如揖(입동산여음) 瀛丘我赤山(영구아적산) 嵌空危欲墜(감공위욕추) 玉斧鑿何年(옥부착하년)

#### - 玉溪逍遙生 (옥계소요생) 韓昌裕 (한창유)

골짜기에 들어서면 산이 내게 절하는 듯 허리를 굽히고 들렁구에 서고보니 신선이 따로 없네 위태로운 바위구멍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하네 어느 시절에 신선이 옥도끼로 저렇게 깎았던고

- 옥구슬처럼 투명한 계곡물에 노니는 서생 한창유\*



<sup>\*</sup> 이 책에 실린 마애명 주해는 현행복 해설, 〈방선문〉 참조

### 型机,人比是学之中 好生八时儿子盖人上的王上时少小

깊은 골짜기, 무지개 돌문에 들어서니 연무가 드리워진 구름을 뚫고 들려오는 학의 아련한 울음소리, 마치 신선을 부르는 선비의 부름과 다르지 않다. 선비는 뚫린 바위를 지나 화선대 위에 앉아 신선을 기다린다. 기척이 없어 좋은 풍광만 구경하고 가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절경을 안주 삼아 홀로 곡주를 기울인다.

울울창창 계곡을 둘러싼 기암절벽은 쏟아질 듯하고 붉은 진달래가 제 빛을 더하니, 내 이곳에 앉아 기다리는 신선 오지 않아도 꽃들이 시중들고 흘러내리는 계곡 물소리는 선녀의 가야금을 대신하네. 이보다 더한 안주 어디 있으랴.

반구 위에 몸을 뉘어 하늘을 바라보며 절로 떠오르는 시상을 더듬다 술이 조금 올랐을까 문득 조각구름 사이로 천지만물을 밝히며 몸을 드러내는 백록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다. 살포시 퍼지는 하얀 구름과 어우러진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내 곁에 당도한 듯 신비롭고 상서로운 느낌이로구나.

### 喚仙臺(환선대)

萬壑乾坤大(만학건곤대) 石門日月閑(석문일월한) 曾云無特地(증운무특지) 其箇有神山(기개유신산) 花老已春冬(화노이춘동) 岩賞太古歡(암상태고환) 戛然鳴發意(알연명발의) 知是在朱間(지시재선간)

- 근亥 春 (기해 췬) 金永綬 (김영수)



#### 화선대

고은 골짜기는 천지의 위대함이요 면고한 돌문은 해와 달의 한가로움이라 일찍이 일컫기를 배필 없던 삼신인의 땅 그것은 바로 신령스런 산이 있음이라 꽃 시들어 봄은 어느새 겨울로 바뀌어도 바위는 여전히 태고의 기쁨 지닌 채 있다네 알연한 학 울음소리 품은 뜻 잘 울려주니 이런 이치 깨달음 선계의 경지 들어섰음이라

- 기해년 봄 김영수



## サペノ、人はそれといるトーミなをこれという。 からり からり かんし かいなの かっこなをこれ

신선을 만나러 왔건만 병풍처럼 드리워진 기암절벽의 천하절경에 취해, 한 잔 드리운 술에 취해, 깜박 선잠이 든 것일까. 꿈인 양, 생시인 양 우뚝 선 기암절벽 사이로 연무가 피어오르며 백록을 탄 신선이 나타났다. "내 자네의 설움을 익히 아니, 술잔을 맞들고서 서로의 마음은 나누고, 바위계곡에 악을 높여 꽃들과 더불어 풍취를 즐겨봄세"



에워싸던 구름이 흐트러지며 영주산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고, 선녀들이 춤을 추니 스치는 옷깃마다 진달래꽃 향기가 가득하다. 넋이 나간 선비의 눈앞에 산해진미 가득 술상이 벌어진다. 신선과 마주해 한잔 두잔 주거니 받거니 들려오는 풍악소리가 더욱 즐겁기만 하다.

"내 영험한 이곳에 와, 잠시 세상의 시름을 잊고 선계와 조우하며 반나절 지내니, 이 세상에 더할 나위없는 즐거움이오." 어떤 연유인지 선비의 마음에 오랫동안 응어리진 근심과 걱정, 원망이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묘연한 감정이 인다. 신선과 서너 잔 기울인 술잔에 흥취가 무르익으니, 달은 벌써 중천이다.

"세상사 부질없는 일에 내가 나를 고뇌하게 만들었구나. 붙들고 놓지 못한 허망한 욕심이 나를 옭아맸으니, 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비우고 비우니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답구나."

### 登瀛邱(등영구)

石竇呀然處(석두아연치) 巖花無數開(암호무수개) 花間管絃發(화간관현발) 鸞鶴若飛來(난학약비래)

- 근未 首夏 (기미 수하) 洪重徵(홍중징)

뚫어진 바위 구멍 입을 크게 벌린 듯 암벽사이 봄꽃들 여기저기 피어났네 꽃 사이로 퍼지는 풍악소리 선율에 신선 태운 난새 학새 너울너울 날아오르는 듯

- 기미년 초여름 홍중징



# 신선과 함께 걷는 방선문 가는 숲길

### 子は、人はは とらこと ユニトダーをとう フロデットとろと

"나는 언제나 이 곳 머무르니, 당신이 찾으려 하면 언제든 찾을 것이요. 보이지 않아도 나의 기운이 머물러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외다. 다시 연이 닿거든 그때 함께 한 잔 술과 시를 읊어 보시지요."

바람과 함께 하얀 구름이 스미며 신선을 에워싸고, 신선의 음성이 기암계곡을 울리며 신선이 구름 속으로 희미해져갔다. 계곡의 찬기운에 움찔하며 깬 선비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아차, 한낱춘몽이었구나."

손에 쥐고 있는 빈 술잔을 바라보니 허망함만 가득하다. 날은 어스름하게 짙어지고 어느덧 계곡 위로 샛노란 달빛이 출렁인다. 달빛의 끝에 닿은 선비의 눈에 백록의 모습이 보인다. "아니, 저건 신선이 타고 왔던 백록이 아니던가?"

백록을 쫓아 허겁지겁 달리던 선비의 눈에서 백록이 희미해졌을 때쯤, 선비가 서 있던 바위에 선명하게 써내려간 글귀가 시선을 끌었다. 방선문(訪仙門), 신선이 머무는 곳. 선비는 그 옆 바위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 수 적어 내려갔다.

壁間纏一路(벽간재일로) 自作石門開(자작석문개) 騎鹿遊仙去(기록유선거) 我行覺後來(아행각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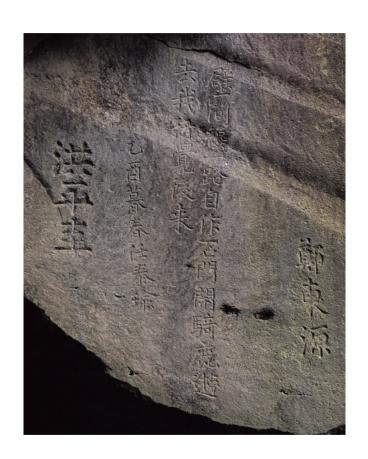
- 乙酉 暮春(을유 모춘) 任泰瑜(임태유)

암벽사이로 겨울 길 하나 뚫려있어 저절로 지어지길 돌문 열린 형태라네 백록 타고 놀던 선인 떠나가고 없지만 훗날 다시 와 나의 다녀감 알아차리겠지

- 을유년 저무는 봄 임태유

신선과 함께한 찰나의 풍류를 기암바위에 새기며 선비는 속세로 돌아왔다.





### ඉ구춘화(靈丘春花)와 방선문축제

## 上門山の交通工具人人人人人の写的 )上台皇型で



방선문(들렁귀) 일대는 옛날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이 6방 관속을 거느리고 찾아 풍류를 즐겼다는 곳이다.

'영구'는 신선이 살고 있는 언덕을 말함이요, '춘화'는 만발한 풍경을 말하는데, 봄이 되면 방선문 계곡에 참꽃이 만발하여 절경을 이룬다.



그 옛날 하천 가운데 우뚝우뚝 들어 선 기암괴석 사이사이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냇가 양쪽과 언덕에 제멋대로 피어난 진달래 무더기, 봄을 가장 먼저 알리며 화려하게 피어나는 진달래꽃의 전설을 보면 사랑에 한이 맺힌 사람이 꽃으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보며 피어난다고 한다.

상춘의 설레임으로 이곳을 찾은 옛사람들이 영구춘화의 아름 다움에 반하여 차마 들렁귀를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꽃이 되고 싶은 심경을 대신해 바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은 아닌가 싶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방선문을 찾아 북쪽 입구에 서서 소원을 빌곤 한다. 그러면 신선들이 언제든지 내려와 사람들의 소원을 알아 듣고 이를 백록담을 통해 하늘에 전한다고 한다.

제주문화 길잡이

**춫던**: 찾던 **엉덕**: 언덕 **가심**: 속마음, 가슴 雙溪聖俗妻(쌍계성속취) 石門合歡開(석문합환개) 尋仙宣淸軟(심선의청가) 銘士已覺來(명사이각래)

두 갈래 난 시내로 성과 속이 머물던 곳 하나 된 기쁨 나눠 돌문이 열렸다네 신선을 찾음엔 맑은 노래가 제격인데 바위에 이름 남긴 선비들 어느새 알고 찾아왔네





"꽃들 사이로 풍악소리 울려퍼질 때, 신선 태운 학새 너울너울 날아든다."

봄향기에 취한 시와 신선을 찾는 노래가락에 취해 이곳에 와보니 계곡에는 벌써 사람들이 꽉 차있다.

이곳을 거닐며 애랑과 배비장도 만나고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한가득 느끼며 한천의 언덕에 다다르니, 이 또한 신선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 신선 찾아 방선문 가는 숲길

2013년 1월 7일 인쇄 2013년 1월 17일 발행

발행처 오라동주민센터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기획 펴낸이 양진건 · 김맹하 · 박여성 · 김민형

고순여 · 김병효 · 문숙희 · 박민희 · 이서현 · 현성미 만든이

전화 064) 746-2076

064) 754-2484

펴낸곳 디자인키

ISBN 978-89-966294-3-6

- ※ 이 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오라동주민센터와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 센터의 협력사업 결과물로 제작되었습니다.
- ※ 관련 사진 자료는 오라동주민센터,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와 오라동자연문화 유산보전회가 제공하였습니다.
- ※ 이 책의 저작권은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